

# 벼 해충 먹노린재 발생 급증 '비상'

## 익산시 1만 6500ha 긴급공동방제 실시

벼농사 후기에 갑작스럽게 먹노린재가 대량 발생하자 익산시가 14일 까지 긴급 공동방제에 나선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달 초 눈에 잎 색이 변하고 이삭이 하얗게 고사되기 시작해 확인해 본 결과 다량의 먹노린재가 발견됐다. 올해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먹노린재 특성상 월동하여 내년 농사에 도 큰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확실시 되어 농업기술센터는 서둘러 전체

벼 재배면적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됐다. 농업기술센터는 빠르게 방제관련 농협, 행정 등과 함께 긴급 방제회의를 개최하고, 피해가 극심한 성당면을 시작으로 함라, 낭산 일원 1만 6,500ha를 방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새벽에는 성당면 전체 750여ha를 대상으로 익산시 각 농협에서 보유중인 관여방제기와 무인헬기 8대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걸쳐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먹노린재 형태는 성충이 흑색으로 9mm 정도되며 평균 산란수는 30개 정도 된다. 겨울에 산기슭의 낙엽 밑이나 제방, 논둑의 고사된 잡초 속에서 월동을 하다가 성충이 6월 초부터 논으로 이동하여 7월 상순에 발생했다가 성충이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줄기에서 즙액을 흡즙하여 개화 직후에 피해를 받으면 죽어가 되고 등숙기에 피해를 받으면 반점이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이

다. 올해는 기상여건이 이삭이 나오는 때(출수기)인 8월에 비온 날이 15여 일 동안 계속되어 방제를 했어도 치사량이 줄어들어 생육 밀도가 높아 후기에 피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농사에 큰 피해를 안겨주는 먹노린재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동방제 기간에 우려되는 논은 한필지도 빠짐없이 방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가 주최하고 '제4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군산 리마다호텔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우호도시 교류회.

## 우리는 이웃사촌... 中 교류 재개 신호탄

14일부터 16일까지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개최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 청다오통상사무소 및 엔타이사무소가 협력하는 '제4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군산 리마다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군산시의 중국 교류도시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온 우호도시 교류회는 청다오, 베이하이, 선양에 이어 군산에서 네 번째 행사를 치르게 되었으며, 이번 행사는 중국 내 13개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관계자를 초청하여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

질 예정이다. 올해는 '풍·화·격'을 갖춘 21세기 지역사회를 위한 한·중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려 경제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공유,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對 중국 교류가 활발하게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오랜 역사와 문화로 이어져 온 양국의 자매·우호도시들은 앞으로도 경제·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파트너로 발전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군산소방서 홍보 랩핑 부착

군산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랩핑 홍보물을 군산 이마트내 출입문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서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전리복도는 보급률이 37퍼센트에 그쳐 저조한 편이다. 이에 군산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마트 출입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랩핑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좋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조선소 재가동 범시민 대책위 출범

정계·학계·산업계·시민단체 구성 완료... 위촉장 수여·첫 회의 개최

군산시는 11일 군산조선소 재가동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군산시청에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군산지역 정계,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여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각 분야의 자문을 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조선소 구조 조정 대응 및 지원사항과 지난 7월 20일에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선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재가동 전까지 조선업체 및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을 모색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조선소, 한곡GM 등 산단 내 입주한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군산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비탄을 이룰내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한국신종교, 치유를 말하다' 출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치유와 통합을 위한 한국신종교 이야기 '한국신종교, 치유를 말하다(모시는사람들, 2017)'를 출간했다. 한국 교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세력과 서구세력 간에 각축전이 치열했던 한국의 근대는 내부적으로도 삼정문란(三政紊亂) 등 체제 해체 현상의 심화로 인해 일반 민중들의 생업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민중들의 몸부림은 동학(東學)으로 대변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꿈꿔왔으며, 동학은 민중적인 유교, 민중적 불교, 민중적 도교와 민중적 차원에서 새로 조명된 노장(老莊)사상과 선(禪)사상, 민중적 기독교 사상 등 핵심적인 생명 원리

를 창조적으로 통일한 보편적 생명사상'이라는 점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 새로운 종교로서 전혀 손색없는 사상이자 철학, 종교로 자리했다. 이후 증산 강일순, 홍암 나철, 소태산 박종빈 등 동학에 영감을 얻은 다수의 종교적 선각자들이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이들은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학의 문제의식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자 부심해 각각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을 창교했다. 특히 이들의 가르침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치유와 통합'의 원리로서 이 책은 한국 연구재단 2015년도 학술대회 지원사업성과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고를 수정 보완해 현대 한



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의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했다. 본문에서는 제1부 기초 강연과 특별강연, 제2부 종교 일반의 관점에서 치유 및 통합 이론과 그 쟁점 검토, 제3부 동학을 비롯한 근대 한국 신종교 각각에서 드러나는 치유와 통합의 논리와 실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민원후견인 유공 우수공무원 5명 선정

익산시 표창장 전달 격려

익산시가 11일 2017년도 상반기 민원후견인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5명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시는 민원후견인 유공공무원에 ▲황기상(문화관광과), ▲고윤석(교육정보과)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최영준(민생경제과), ▲정형진(하수과), ▲황현우(교통행정과)를 각각 선정했다. 시는 민원후견인 활동 유공공무원 2

명에게는 5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민원 처리 마일리지 실적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20만원의 상품권을 각각 지급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 1회 방문제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 경험 이 풍부한 계장을 전문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 설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법정기간보다 단속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자봉센터 신축 건물 이전 업무 개시

(사)군산시자봉봉사센터가 11일 신축 건물로 이전을 마치고 12일부터 새 동지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센터에서부터(군산시 삼화안길 9, 문화동에 새로 건립된 군산시자봉봉사센터는 대지 3,446.9㎡(1.043평), 건축면적 1,393.9㎡(422평)의 지상 2층으로 건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5억여원이 투자되었다. 센터는 사무실과 강당, 정보화교육

실, 봉사단체활동방, 교육실, 재활용매장, 명예의 전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에 따른 개청식은 10월 하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복 이사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 가능한 통합 건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자원봉사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